

미국, 태양열 발전설비 최대 기록

태양에너지협회, 2012년 3.3GW 상회 ... 태양전지판은 하락세

미국에서 태양열산업 발전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발전설비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CNN머니가 3월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는 2012년 태양열 발전규모가 3.3GW(1GW=10억W)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50만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11년보다 무려 76% 증가했다.

설비규모가 늘어난 것은 태양전지판(Solar Panel) 가격이 하락하고 세금 인센티브와 금융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태양에너지산업협회는 밝혔다.

태양에너지산업협회에 따르면, 태양전지판 가격은 2001년 초에 비해 60% 급락했다.

패널의 핵심부품인 실리콘(Silicone) 가격이 하락하고 중국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양산체제가 갖추어지면서 생산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솔린드라와 에버그린 등 관련기업들이 파산하기도 했다.

에너지리스트들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비용효율성이 떨어지는 태양열기업을 중심으로 추가로 파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자동차 생산기업이 파산과 합병 등으로 최종적으로 <빅3>만 남게 된 것과 같은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격하락은 소비자들과 태양전지판 설치기업에게는 호재가 되고 있다.

다만, 다른 전력설비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용이 비싸 미국 전력 생산량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CNN머니는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15>